“自己事 마친 대장부가 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금일(今日)은 갑오년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이번 한 철도 산승이 반가운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 소식을 전해오는 이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수행자가 자기사(自己事)를 밝히지 못하였다면 어찌 해제가 있을 수 있으리오. 오직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들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생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인간 몸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설사 받았다 한들 또다시 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일진대,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인 최상승의 견성법(見性法)을 만난다는 것은 가히 무량의 대복(大福)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을 향해 총알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천고에 만나기 힘든 생사요달(生死了達)의 견성법을 만났거늘, 시은(施恩)만 축내면서 산천초목 구경하러 다니고 온갖 시비에 다 간섭하고 망상에 게으름에 시간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언제 눈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니, 해제라는 생각일랑 지금 당장 내려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되, 화두의심이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화두를 챙기고 의심을 쭈욱 밀어주기를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끊어짐 없이 간절히 화두를 챙기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하여 발동이 걸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러면 화두 한 생각이 성성하게 냇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화두 한 생각이 성성하게 흐르는 가운데 의심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의심이 간절한 가운데 화두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야 보는 것도 잊고 듣는 것도 잊어버려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모든 업이 다 멈추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의식이 다 없어져서 누가 봐도 마치 등신같이 되어 시절인연만 기다리게 되는데,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천성인(一千聖人)이 베풀어놓은 수많은 법문들을 한 꼬챙이에 꿰어버리게 되니, 누가 어떠한 법문을 묻더라도 척척 바른 답을 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여 바른 답이 척척 나올 거 같으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온전히 다 알았다하여 인가(印可)하고 법을 부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왈견성(號曰見性)으로 마침내 생사를 요달하여 영원토록 부처님의 진리의 낙을 누리면서 자유자재로 살게 되는 길입니다. 중생구제(衆生救濟)의 원력으로 다시 오고 싶으면 사바에 다시 오게 되고 아니면 영원히 열반낙을 누리는 것이니, 역대 모든 부처님 조사스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귀중한 법이 오직 이 문중에만 있음이요, 모든 분들이 다겁의 세월 속에 드디어 만난 것이니, 해제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허송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혼신의 정력을 쏟아 이 일을 마쳐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바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에도 천만금의 시은(施恩)도 능히 녹이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됨이요, 역대 불조(佛祖)의 큰 은혜를 갚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출가자 재가불자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자기사를 마친 대장부(大丈夫)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래에 도를 닦는 이들이 해제하면 행각한다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선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가장 먼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랑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빈틈없는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필경(畢竟)에 시회대중은 고인(古人)의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허공낙지시(虛空落地時)에 향여도(向汝道)리라.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대를 향해 일러주리라.

분별심 떨치면 그대로 견성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동안거 석 달의 결제가 끝나 해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맺는 것이며, 어떤 것이 푸는 것인가?

맺고 푸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을 찾아나서는 안거수행의 인연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인지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다른 것을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평등한 마음이 실제로는 그릇된 생각과 관념, 편견에 의해서 주관적 해석을 더하기 때문에 차별과 분별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진범부(但盡凡夫)이언정 별무성해(別無聖解)라 했듯이 이 분별심(分別心)만 떨어지면 그대로 견성(見性)이며, 성인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했어요. 해제 이후 만행할 때도 반드시 화두를 참구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본분을 결코 잊지 말고 행각하기 바랍니다.

탐진치 집착하면 몇 겁 지나도 성불 어려워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諸行無常 是生滅法(제행무상 시생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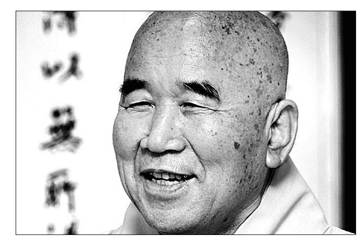
요새는 모두 제행이 유상(有常)이라, 제행이 무상도 아닙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탐진치에 집착하면 몇 겁이 지나더라도 성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독하게도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추위를 이겨나가면서 선(禪)도 하고 강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스승 되고 지도자가 되는 힘입니다. 그 힘을 살리고 살려서 헛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된다면 부처님 은혜를 능히 갚고도 남습니다. 아무쪼록 정진하고 정진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신도들도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가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의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당당한 지도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거룩한 참 은혜를 남김없이 갚아드려야 합니다.

견성코자 한다면 도심부터 굳건해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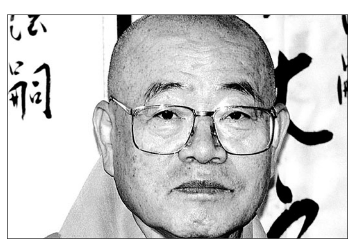
道心堅固(도심견고)하야
須要見性(수요견성)하라
疑着話頭(의착화두)호대
如咬生鐵(여교생철)이어다

도심을 견고히 해 반드시 견성할지어다. 화두를 굳게 참구하기를 마치 생철 씹듯 하라.

중생의 어리석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 같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같은 번뇌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요동칩니다. 수행자가 견성코자 한다면 도심부터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방석위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눕고 일어서면 본분사와 가까워질 기약이 없습니다. 한번 결심을 했으면 씹히지 않는 생철을 씹고야 말겠다는 정신으로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해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지나쳐가지 않는 생사의 마와 결판을 내는 그 날을 위해 용맹심을 다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참상할지어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부처님과 조사의 지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정법안(正法眼)을 구하고저 함이로다. 불법(佛法) 문중에 수승(秀勝)한 보배는 각자의 있는 바 마음과 성품의 보배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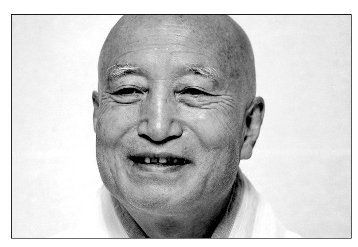
수행하는 납자가 다 이르되 해제라 하니 해제는 참 성품을 깨닫고 부처님과 조사를 잡으며 바람을 따르고 물결을 따라서 인연따라 중생을 제도하면 곧 이 해제니 만일 능히 일 마친 장부일진댄 한 마디 일러라.

대중이 말이 없거늘 잠깐 있다가 ‘할’ 을 한번 하고 이르되 밥값은 그만두고 도리어 나에게 방값을 내라. 만약 또한 깨닫지 못했을 진댄 스스로 속이지 말고 간절히 모름지기 참상(參祥)할 지어다.

게송으로 이르되 심공소유여허공(心空所有如虛空)하고 돈식제연무소유(頓息諸緣無所有)로다. 원리망상급제취(遠離忘想及諸趣)하면 처지답득안심처(處處踏得安心處)로다.

고해에서 해탈법 익힌것은 천만다행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고인(古人)이 말씀하시기를 결제에 결제가 없고 해제에 해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해제요 결제라 하셨는데, 금일대중은 어떤 결제와 해제를 하셨는가.

結時石人夢 解時木人歌
夢歌都放下 望月明如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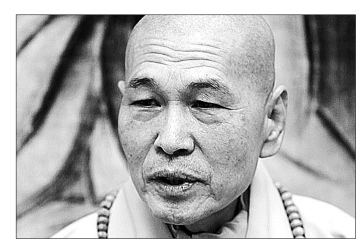
결시는 돌사람이 꿈꾸고 해시에는 나무사람이 노래를 부름이다. 꿈도 노래도 다 놓아버리니 보름달 밝기가 칠흑 같더라.

생사윤회가 도도히 흐르는 고해에서 불법을 만나 다행이 해탈법을 익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 중에 다행이라 하겠다. 공부하는 사람은 진중해야 할 것이다.

발심하고 또 발심할 일이다. 자성삼보(自性三寶)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귀의할 곳이며 이것을 철저히 알면 법법(法法)이 상응(相應)하고 티끌 티끌이 해탈(解脫)하여 백천삼매(百千三昧)와 무량묘의(無量妙義)가 함께 드러나 영원(永遠)토록 자유(自由)하고 영원(永遠)토록 무애(無碍)할 것이다.

수행 궁극적 원력은 ‘요익중생’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이제 여러분은 삼동안거 고요한곳의 수행을 잠시 끝내고 산문 밖으로 나아가 시끄러운 곳으로 수행을 연장해 갈것입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원력은 지혜로서 요익중생(饒益衆生)하는 것입니다.

삼동안거 동안의 애매모호 했던 자신의 깨달음은 실천이라는 실습을 통해 스스로가 점검될 것입니다. 경전과 선서에서만 배운 마른 지혜와 보고 듣고 검색하여 얻어진 지식과 상식의 전문성만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식심견성(識心見性) · 발식취경(發識取境) · 근진동원(根塵同源)이라는 말처럼 육근 · 육식이 하는 고급 놀음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죽은 고목처럼 앉아서 삼매에 든다 해도 아라한의 흉내밖에 될게 없으니 명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눈들어 강산을 보니 천백억 화신들께서 향기로운 미소로 우리들에게 손짓하는 봄입니다.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깨어나자 비구니여, 모이자 비구니회관 법룡사로!

오직 결의대회 동참만이 전국비구니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현 전국비구니회의 문제점

- 현 비구니회칙에 의하면 적법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불가함. (회칙 16조 1항)
-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이 위법적으로 구성됨. (회칙 17조 1항 및 22조 3항)
- 위법하게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은 무효임.
-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회기를 넘기고 4개월째 거부하고 있음. (회칙 11조 2항)

■ 일시 : 불기2559(2015)년 3월 16일 (월) 오후 2시 ■ 장소 :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주최 · 주관 : 열린비구니모임(가칭) /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준비위원회 | **후원** :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전국비구니회원 일동

준비물 : 대가사 지참 | **문의** : 02-739-6697 / 010-4678-1685 / 010-2079-2263 | **열린통장** : 농협 302-0895-8103-11 박정숙

■ **결의대회 동참 서명 1,030 명단** (가나다순) 갈영진 견명 견성 견유 경륜1 경륜2 경문 경민 경봉 경선 경연 경원 경인 경조 경진1 경진2 경진3 경행 경헌 경현 경호1 경호2 계봉 계협 고경 고담 고심 고진 공유 관송 관정 광용 광은 광전 광현1 광현2 구변 근오 금룡 금산 금주 금해 기나 기용 기현 기형 길상 길훈 김해연 남견 남명 남석 남수 남오 남전 남현 녹연 능륜 능우 능인 능제 능지 능학 능행1 능행2 능환 능휴 다경 다래 다문 다민 다우 당경 대경 대련 대성1 대성2 대안 대엽 대용 대우1 대우2 대운 대원1 대원2 대원3 대월 대유 대정1 대정2 대한 대현 대훈 덕근 덕림 덕원 덕인 덕일 덕현 덕호 덕화 도강 도견 도겸 도경1 도경2 도공 도관 도국 도림 도문1 도문2 도법 도상 도선1 도선2 도승 도안1 도안2 도연1 도연2 도연3 도연4 도우1 도우2 도우3 도운1 도운2 도의 도원 도유 도윤 도일1 도일2 도정 도준 도진 도행 도현1 도현2 도현3 도혜 동근 동명 동석 동선 동성 동숙 동암 동언 동엽 동완 동우 동욱 동운1 동운2 동원 동일 동조1 동조2 동찬 동참 동천 동하 동현1 동현2 동호 동환 동효 동희 두운 득원 등현 만성 만오 명관 명관 명광 명선 명수 명순 명신 명연 명오 명은1 명은2 명재 명전 명종 명주1 명주2 명지 명행1 명행2 명현1 명현2 명호 모선 목산 목윤 묘각 묘공 묘관1 묘관2 묘련 묘명 묘법 묘선 묘성 묘순 묘음 묘정 묘준 묘현 묘혜 무견 무경 무구 무등 무상 무염 무위1 무위2 무일 무준 무진1 무진2 무행 문성1 문성2 문수 미광 미단 민욱 민홍 백경 범견 범룡 범승 범여 범오 범준 법경1 법경2 법경3 법기 법념 법등 법륜 법산 법상 법성1 법성2 법성3 법승 법안1 법안2 법안3 법연1 법연2 법용 법우 법운 법유 법인 법일 법자 법장 법전 법정1 법정2 법주 법준 법진1 법진2 법천 법철 법현1 법현2 법혜1 법혜2 법홍 벽공 보각 보경1 보경2 보경3 보경4 보관 보광 보규 보근 보덕 보련 보림 보명1 보명2 보문1 보문2 보문3 보민 보석 보안 보영 보우 보운 보은 보정 보행 보현1 보현2 보회 본각 본심 부동 부현 삼덕 삼명1 삼명2 삼오 삼호 상능 상덕 상명 상민 상영 상우 상윤 상일 상하 상현 상화 상훈 서강 서경 서광 서목 서보 서암 서용 서원 서진 석도 석등 석묵 석문 석민 석산 석우 석재 석준 석현 선경1 선경2 선공 선관 선광 선기 선나 선명 선묵 선문1 선문2 선법 선보 선빈 선양 선영 선오1 선오2 선우1 선우2 선운 선의 선일1 선일2 선정1 선정2 선정3 선종 선주1 선주2 선초1 선초2 선하 선학 선해 선행 선현1 선현2 선혜1 선혜2 선후 설오 성각 성경 성곡 성공1 성공2 성관 성능 성담 성련 성모 성목 성묵 성민1 성민2 성민3 성범 성법1 성법2 성본 성수1 성수2 성안 성업 성열 성엽 성오 성우1 성우2 성원 성윤1 성윤2 성은1 성은2 성인 성일 성정 성주1 성주2 성준 성진1 성진2 성진3 성찬 성천 성천 성탁 성파 성행 성현 성호 소모 소연 소현 수경 수근 수등 수범 수법 수산 수안 수원1 수원2 수인1 수인2 수진1 수진2 수천 수현1 수현2 수현3 수환 순행 순형 숭신 승륜 승민 승본 승안 승오 승진 승현 승혜 시연 시운 시현 심원1 심원2 안후 여법 여진 여향 여현1 여현2 연광 연달 연수 연욱 연정 영광 영덕 영명 영안 영운1 영운2 영원 영진 영현 영호 예진 오인 요원 요현 용훈 우건 우관 우담1 우담2 우담3 우림 우빈 우석 우송 우신 우연 우원 우진 운광 운봉 운성 운아 운정 운효 원공 원과 원관 원교 원돈 원묘 원산 원성 원소 원영 원우 원일 원정1 원정2 원조 원해 원행 원혜1 원혜2 월영 월인 월전 유건 유곡 유광 유수 유신 유정 유진 유화 육문 육통 은광 은성1 은성2 은일 은정 은주 응일 의성1 의성2 의천 의현 의효 이혜원 인공 인목 인성1 인성2 인성3 인욱 인행 인화 일공 일광 일권 일련 일륜 일미 일법 일봉 일산 일성 일양1 일양2 일여 일연1 일연2 일오 일원 일윤 일장 일조1 일조2 일주 일중 일지 일진1 일진2 일태 일현 일호 일홍 일효 임대 자경 자광 자도 자명1 자명2 자목 자문 자민1 자민2 자선1 자선2 자성 자연 자용 자우 자운 자윤 자인 자찰 자청 자하 자해 자현1 자현2 자현3 자형 자홍 자효 자훈 장주 장하 재마 재범 재성 재오 재욱 재운 재원 재호1 재호2 재훈 적묘 적연 적인 적조 정견1 정견2 정관1 정관2 정관3 정도 정도 정명 정목 정묵1 정묵2 정문1 정문2 정법1 정법2 정보 정본 정선 정성 정수1 정수2 정수3 정수4 정수5 정심 정안 정암 정언 정엄 정엽1 정엽2 정우1 정우2 정우3 정우4 정우5 정우6 정욱1 정욱2 정운1 정운2 정원1 정원2 정윤 정은 정인 정일 정주 정해 정행 정현1 정현2 정현3 정현4 정협 정혜 정호 정효1 정효2 제연 제원 조안 조연 조해 종경 종근 종민 종선 종승 종열 종욱 종인 종주 종준 종찬 종호 종화 주광 주석 주융 주현 주형1 주형2 주호 준호 중성 중안 중원 중하 증휘 지견1 지견2 지공 지광1 지광2 지광3 지광4 지담 지도 지만 지명1 지명2 지명3 지명4 지문 지민1 지민2 지백 지산 지상1 지상2 지상3 지상4 지선 지설 지성1 지성2 지아 지안 지엄1 지엄2 지완 지우 지욱 지운1 지운2 지운3 지웅1 지웅2 지원1 지원2 지유1 지유2 지윤 지율 지은1 지은2 지인1 지인2 지인3 지인4 지일 지정 지중 지천 지행1 지행2 지현1 지현2 지현3 지현4 지혜 지호 지환 지황 지효1 지효2 지훈 지휴 진공 진락 진명 진묘 진벽 진본 진석 진선 진성1 진성2 진송1 진송2 진여1 진여2 진용 진우 진원 진전 진종 진표 진홍 천도 천연 철륜 철안 철우 철은 철환 청안 청욱1 청욱2 청원 청진 청호 초연 초은 쾌현 타욱 탁연 탄성 탄음 탄준 탄하 탄형 태은 태허 평국 하송 하연 하올 하윤 학운 한성 해관 해광 해만 해성1 해성2 해성3 해성4 해연 해욱 해운 해원 해주 해현 행관 행도 행돈 행련 행법 행오 향일 혁인 현각1 현각2 현견 현경 현공 현광 현근1 현근2 현기 현담1 현담2 현담3 현도 현명 현문1 현문2 현봉 현빈 현산 현성1 현성2 현소1 현소2 현소3 현수1 현수2 현수3 현수4 현오1 현오2 현우 현욱1 현욱2 현웅1 현웅2 현유 현응 현인 현일1 현일2 현정 현조 현주1 현주2 현진1 현진2 현진3 현진4 현진5 형구 형문 형민 형운 혜가 혜각 혜감 혜고 혜광 혜근 혜눌 혜능 혜덕 혜도 혜등 혜림1 혜림2 혜명1 혜명2 혜묵1 혜묵2 혜문1 혜문2 혜석 혜선 혜성1 혜성2 혜슬 혜안1 혜안2 혜오 혜욱1 혜욱2 혜욱3 혜운 혜원 혜윤 혜인1 혜인2 혜일1 혜일2 혜전1 혜전2 혜정1 혜정2 혜조1 혜조2 혜조심 혜종 혜준1 혜준2 혜중 혜진1 혜진2 혜천 혜충 혜특 혜향 혜호 호현 화남1 화남2 화일 화정 효경 효공 효광1 효광2 효림 효문 효범 효석 효욱 효원 효일 효정 효종 효찬 효탄 효탄 훈재 휴정 희경 희권 희상 희선 희성 희원 희윤 희정1 희정2 희철